

한우안테나 - News

□ 전염병 예방접종 표식으로 가축 죽거나 다치면 보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가축이 낙인과 천공 등의 표식으로 인해 죽거나 다칠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예방접종 후 축산농가들이 가축피해를 우려해 접종 표식을 꺼림에 따라 마련한 가축 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차관회의에 통과된데 이어 조만간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7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후 가축 엉덩이에 낙인을 찍거나 귀에 구멍을 뚫는 표식 때문에 가축이 죽을 경우 가축값의 5분의4를 보상하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간 출하가격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은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접종표식이 필요하다.

[이종순기자 농민신문 7월16일자]

□ “한우산업 실낱같은 희망”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불안심리속에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한우산업의 앞날을 어둡게한 암소도축률이 하강세를 나타내 한우산업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농림부가 9일 발표한 5월 도축검사 실적에 따르면 한우암소도축률은 54.6%를 기록했다. 1999년에 57.6%, 2000년 56.9%를 기록한 암소도축률은 지난 2월 60.3%까지 치솟은 후 하락세로 돌아서 3월 57.2%, 4월 55.8%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같은 암소도축률이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2월 60%를 넘어선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암울하기만 하던 한우산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게 아니냐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근수(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한우사육농가는 “6개월령 암송아지가 190~200만원, 5개월령 수송아지가 180~190만원에 거래되니까 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가에게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한우기반은 저절로 확보된다”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감시제 도입과 등급제 및 고급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한우농가들이 고급육을 생산하고, 한우개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농수축산신문 6월13일자]

□ 과학적인 서비스로 승부건다

“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김영욱)의 ‘위더스 서비스 프로그램’과 ‘위더스 방역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천하제일은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서비스와 방역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 대농민 서비스에 나섰다.

DNA마커 서비스에서부터 면역글로블린 측정 서비스, 썸베트 -수의 서비스, 초음파 육질진단 서비스,

백신접종 프로그램, 환경정화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과학적인 서비스에 들어가자 한우농민들은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DNA 마커는 암소 및 송아지의 혈액검사로 DNA를 판독하여 유전적 자질을 검사하는 서비스로 근내지방도의 유전적 능력을 비롯 등지방두께의 유전적 능력, 등심단면적의 유전적 능력, 일당중체량의 유전적 능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면역글로블린 측정 서비스는 초유내 면역글로블린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초유의 품질을 알 수 있게 하고, 송아지 혈액내 면역글로브린 함량 측정으로 송아지 면역능력 여부도 판단해 주고 있다. 썸베트-수의 서비스를 통해 설사, 호흡기 질병 원인균 분리 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 총란도 검사해 주고,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 수질검사 등까지도 해 주고 있다.

천하제일은 전염성 기관지염, 소바이러스 설사, 파라인플루엔자, 소유행열, 아까바네병, 로타·코로나 등에 대한 백신접종프로그램도 개발, 방역 서비스에 들어갔다. 또 환경정화프로그램도 개발, 우사, 해충구제, 환기, 운동장, 발판소독조 등을 구분한 정화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다.

[김영란기자 축산신문 7월10일자]

□ 기한 앞둔 냉장육 냉동유통 '쟁점화'

냉장상태로 수입된 육류를 얼려서 냉동육으로 유통시키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미국과 호주가 계속 강도 높게 요구해 오고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냉장의 냉동화를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를 판매업자 자율에 맡기되, 다만 포장지에 표시로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통상문제를 우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만약 이를 육류 수출국들이 원하는 대로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쇠고기 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한우산업은 예상외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기자 축산신문 6월29일자]

□ 소값 불안 '허탕사육' 우려

송아지값은 계속 급등하는 반면 큰소값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소 가격 구조가 불안해지고 있다.

송아지값은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 수송아지 기준 3월에 한마리당 150만원, 6월에는 173만2000을 기록했다. 또 7월12일 현재 184만2000원을 기록하는 등 올해 초 133만5000 원보다 무려 38% (50만7000 원)가 올랐다.

반면 큰수소값(500Kg 기준)은 1월 280만7000원에 거래되다 5월에는 266만5000원으로 떨어진 뒤 6월부터 다시 올라 271만5000원을 기록한 후 12일 현재 29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큰소값 상승폭은 올 초에 비해 4.6% (12만9000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12일 기준 큰수소값중 비육필소인 수송아지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62.7%이며, 6월 한달 평균값에서는 무려 63.8%에 달하는 등 불안한 소값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큰수소값중 수송아지값 비율은 1997년에는 43.1%, 99년에 41.2%, 2000년에는 47%를 나타내는 등 지금까지 45%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이성식 차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비 조사결과를 적용한다면 사육규모 30~49마리 농가의 경우 현재 180만원에 송아지를 구입했을 때 출하시까지 제반 비용이 3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제반 비용중 자가노력비와 고정자본 이자 등을 제외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산비가 29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고정철 박사는 “송아지값이 이같이 높을 때는 거세와 장기비육, 치밀한 사양관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마리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순기자 농민신문 7월16일자]

□ 빅3 백화점 HACCP축산물만 취급한다

국내 백화점 빅3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만 취급하거나 이들 제품만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축산물은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HACCP적용 축산물만 취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HACCP 적용작업장에서 가공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가공품, 육가공품 구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시장이 HACCP 축산물 중심으로 급격하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이미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HACCP적용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념육을 비롯한 모든 축산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식품매입팀 관계자는 “HACCP 인증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시식회 및 각종 행사를 펼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연말까지 축산물 취급을 HACCP 인증 작업장 생산품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도 앞으로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 HACCP 제품을 취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세계백화점도 축산물을 롯데나 현대백화점과 같이 HACCP제품 위주로 취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축산유통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형백화점들이 다투어 HACCP 인증 작업장으로 축산물 구매선을 들리고 있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유통 정착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양정권 기자 농수축산신문 7월4일자]

□ “식육모범업소 소비자반응 긍정적”

“축산기업중앙회가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 모범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광고를 내보낸후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매일 20~30통씩 걸려오고 있다.

문명창 축산기업중앙회장은 이와관련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그동안 좋지 못했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해 운영한 이후 모범업소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모범업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매장관리, 의식변화, 시설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과 청결한 매장 이미지를 심기위해 위생복을 업주가 스스로 구매,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업소가 개별 구입하면 1벌당 3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생복을 중앙회가 각 시·도지회를 통해 주문을 받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양정권기자 농수축산신문 6월19일자]

□ 전남도, 한우산업 4,357억 투입

전남도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4,357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최근 축산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번식기반 확충, 한우개량 촉진, 우수 암소 선발, 생산성 향상, 지역단위 한우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전남 한우발전 10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2002년부터 10년간 해마다 300억~500억원씩을 들여 현재 20만8,000여마리의 한우를 10년 후 31만8,000여마리로 53% 가량 늘리고 송아지 생산때 다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한우 가격폭락때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육질향상을 위한 거세사업, 우수형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수암소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암소를 선발하기 위해 불량 암소를 도태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료작물 집단재배, 축사 냉방 및 환풍설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익주기자 농민신문 7월4일자]

□ "일본 두당소득 번식우가 높다"

일본의 경영형태별 두당 소득은 거세비육우보다 번식우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수원축협에서 열린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연찬회」에서 중축개량협회 이종헌 한우부장이 「일본 화우(和牛)산업 실태조사」주제 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특히 일본의 화우 송아지값을 보면 개량과 개체능력에 따라 25만엔에서 1백만엔까지 가격차가 나고 있어 30년 넘게 꾸준히 개량을 해서 최고급 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에서는 고소득을 보장받고 있듯이 우리 한우 번식농가들도 개량에 중점을 두면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면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동신기자 축산신문 6월15일자]

□ 육질진단기 활용 '인기'

「한우고급육 생산과 소득증대는 메디슨 육질용 진단기 SV-900 모델 활용에 달려 있다」는 여론이 일선 시·군 축협을 비롯 단위농협과 지방자치단체·농촌기술센터 지역작목반 한우사육농가들사이 드높게 일고 있다.

(주)메디슨(대표 이민화)이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 (주)동도바이오텍(대표 김중구)이 3년전 본격 판매에 나선 한우 초음파육질용진단기 「SV-900」모델은 생체상태에서 육질 등급을 판정하는 정확도가 60~90% 사이로 관련농가 고급육 생산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당진축협 김기돈상무·정영환상무·이호욱지도원은 『지난해 8월 「SV-900」모델을 구입,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약 9개월간 한우 1천2백여두를 대상으로 육질등급을 판독하고 도체판정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정확도는 70%』라며 『을 하반기에는 판독기술이 향상되어 정확도는 80% 내외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환기자 축산신문 6월22일자]

□ 소규모 부업농 중심 한우 번식기반 구축

농림부는 한우사육두수 감소를 막고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부업한우사육농가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축협조합·영농조합법인·한우회 등 130개소의 '한우사업추진체'를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규모 부업한우사육농가 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소규모 한우번식농가 육성 방안에 따르면 현재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96개소의 한우브랜드 주체에서 12만2천마리의 한우를 조직화해 사육하고 있으나 이를 오는 2003년까지 '한우사업추진체' 130개소를 육성, 가임암소두수의 50%(33만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우번식농가는 영세하고 노령층에서 주로 사육함에 따라 생산·판매를 조직화·계열화가 되지 않으면 기반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사료 등 기자재의 공공구매와 번식농가가 생산한 송아지를 비육농가에게 판매토록 연계하는 복합경영체로 한우사업추진체를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한우사업추진체에 대해 2002년부터 연간 600억원(지역축협 경제활성화자금 500, 번식우 예탁·위탁사업 100)으로 암송아지 입식비와 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기자 축산신문 6월26일자]

□ 등급 출현율 80%이상 목표 설계 - 축협사료, 「한우명품」출시

농협사료는 한우 1등급 고급육생산을 유도해 한우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오는 7월2일부터 한우전문사료인 「한우명품」을 출시한다.

농협 사료분사(분사장 이정호)는 「한우명품」개발배경에 대해 『쇠고기 및 생우 수입개방, 구제역·광우병 발생우려로 인한 소비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한우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4월 정부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과 발맞춰 한우의 번식기반을 구축, 한우 1등급 고급육 생산을 지원키 위해 한우전문사료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우전문사료인 「한우명품」은 고급육(비육우)사료와 번식우사료로 나뉘어 판매된다.

농협 사료분사에 따르면 한우명품 고급육사료는 한우의 1등급 고급육 생산을 위해 비육 초·중기의 단백질·에너지 균형으로 살코기를 최대 생산하고 고창증등 대사성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또 비육마무리시기의 근대 지방침적을 위한 고에너지 공급과 섭취량을 최대화해 1등급 출현율 80%이상, 일당 증체량 0.85kg이상의 생산성을 목표로 설계됐다. 고급육사료는 「송아지입식」 「육성비육」 「큰소비육」 「마블링사료」로 구성된다.

[축산신문 6월26일자]

□ 축산업자조금 입법화 보완작업 들어가

축산업자조금 입법화가 돼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망이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한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한우협회 공동으로 국회에 '축산업자조금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 김영진 의원, 원철희 의원 외 22인 소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헌소지를 없앴다하더라도 단체의 대표성 확보라든지 거출처, 그리고 자조금관리운영위원회의 명확한 위치 설정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사통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정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정기국회나 아니면 7-8월중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김영란기자 축산신문 6월15일자]

□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활성'

한우 송아지경매시장 시범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7개 조합시장에서 송아지경매시장을 매월 1회씩 개장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 비육농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경매두수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최근 송아지값이 크게 올라 우량한 송아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량한 밑소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경매제도를 규모화된 비육농가들을 중심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매방법은 내정가를 관련자 3-4인의 평균금액정도로 결정하고 고급육 사육농가가 입찰보증금 1백만원 내외를 내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내정가이상 최고 구매가격 응찰자가 된다. 유찰될 경우는 조합에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기자 축산신문 6월5일자]

□ 한우협회-수입육 한우둔갑 엄중 처벌을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자의 엄중한 처벌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중 음식점에서 공공연히 수입육이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되고 있다며 관련자의 명단공개와 엄중한 처벌, 수입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10여년 전부터 시행을 요구해 온 제도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영주기자 농어민신문 6월15일자]

□ 한우협회 '갈 길 멀다'

호주산 생우수입 저지의 선봉역할을 한 전국한우협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우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전국한우협회는 외국생우가 국내에 수입될 경우 한우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회원농가를 주축으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호주산 생우의 국내 수입저지 운동에 총력을 썼다.

이 결과 수입업자로부터 호주산 생우를 추가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물론 수입된 생우도 농가분양 없이 바로 도축하여 수입육으로 유통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에 생우수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또 다시 외산 생우가 수입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생우수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99년 9월 협회가 출범할 당시 한우농가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내건 각종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우유전자 보전사업, 한우산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과 간행물 발간사업, 각종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알선사업 등 많은 사업계획 중 가시화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

이처럼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현 조직체계가 열악한 데다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회원농가 수는 7,800여명으로 지난해초 3,800여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농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전체 회원농가중 회비납부율이 채 10%도 안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우업계 관계자들은 협회가 한우산업과 한우농가 구심체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임원은 물론 회원농가 모두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 조직을 재정비해 결속을 다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호주산 생우수입 저지에 총력전을 펼친 저력을 다시 한 번 협회 정상화와 함께 한우기반 안정에 쏟아 붓는 열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일용기자 농어민신문 6월12일자]

□ '땅끝 해초한우' 첫선

지역 특성을 살려 차별화한 '땅끝 해초한우'가 탄생됐다.

해남군은 지난 99년부터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땅끝 해초한우를 이달말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땅끝해초한우는 해남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을 가공 급여해 육질을 개선, 고급육 생산 비율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청정해역과 땅끝의 지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명품화 했다.

해남농업기술센터는 수입개방에 대응, 한우의 번식능력 향상과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위해 초음파 육질 분석기를 구입, 땅끝 해초한우의 출하시기를 판정하고 원가절감, 조기 임신진단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땅끝해초한우의 초음파 육질 분석 연시회를 개최, 6월말부터 7월초에 출하 예정인 100마리의 대도시 백화점 시범판매를 제의 받는 등 유통업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고 본격 시판에 나선다.

[최상기기자 농어민신문 6월19일자]

□ 우리축산물브랜드 사이버전시관 개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축산물을 인터넷상에 한데 모아 보기 쉽게 전시해 놓은『우리축산물브랜드 사이버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사이버전시관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 meat.com)에 마련되어 한우, 돼지, 닭, 계란 등 67개의 대표적인 축산물브랜드를 전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뉴구성은 각 브랜드별 인사말, 특징, 상품소개, 구입처 안내 등으로 인사말에는 각 브랜드의 개발과정, 브랜드업체의 활동상황, 향후 사업계획과 대표자의 인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브랜드의 특징코너에서는 당해 브랜드의 가치가 사육되고 있는 지역적 환경, 사육규모, 사료의 종류, 생산과정 등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상품소개에는 각 업체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특징 설명과 아울러 판매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전시관에 게재된 한우브랜드로는 강진맥우, 개군한우, 남해화전한우, 늘푸름한우, 대관령한우, 문경한우,

백운한우, 보리한우, 보성녹우, 봉화한약우, 산소한우, 생림맛보우, 수원목장한우, 안동황우촌, 예천참우, 유자골한우, 이맛이야, 자골산쇠한우, 장수한우, 죽정한우, 팔공상강우, 합천황토한우, 홍삼한우, 황토우, 황성한우 등이 있다.

□ 번식우 프로그램 개발 박차

정부의 한우고급육 및 번식우 육성 정책에 따라 배합사료업체들이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과 번식우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하제일사료의 경우는 특히 이미 번식우 육성 프로그램과 배합사료를 개발했고, 퓨리나코리아는 오는 11월 출시 계획으로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도 번식우 육성 사료 프로그램과 한층 질 높은 고급육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거나 이미 개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농림부가 발표한 한우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번식우 육성 정책에 따라 배합사료 업계의 정책도 이에 맞춰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기자 축산신문]

□ 안성마춤한우회, 사료 사양시스템 단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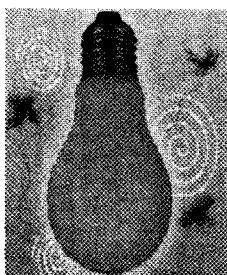
안성마춤한우회(회장 우영목)는 지난 3일 11시에 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 비육분과위원회를 열고 고급육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사료와 사양시스템을 단일화했다.

이번 비육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농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료와 사양프로그램을 단일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안성마춤한우 회원농가에서는 사료와 사양프로그램을 천하제일사료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안성마춤한우 세계제일 명품화 사업」설명회에서 7월 10일까지 단일 사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삼농협에서 출하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곽동신기자 축산신문]

□ 모기 퇴치전구 판매량 급증



동진상사(대표 이원구)는 지난 6월부터 모기퇴치전구를 시판에 들어가 현재 12,000여개 이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모기퇴치전구는 대만에서 15년간 연구 끝에 개발된 세계적으로 입증된 제품이며, 한국에도 특허 출원된 제품이다.

특징은 특수광선 및 색상을 이용해 가로 300cm, 세로 220cm 범위내의 모기를 쫓아버리는 효과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2년간 수입되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축산농가에서 모기 퇴치전구를 사용시 모기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및 질병감염을 방지하여 고급육 생산에 큰 효과가 있고 특히 사람의 야간활동에 유용하다.

(유사제품 주의) 제품문의 : 동진상사 특수사업부(031-718-6283)

도축실적(2001년 06월)

□ 한육우 도축실적

- 소 : 54,251두(한우 41,377, 유우 11,605, 육우 1,076, 교잡우 193)
- 전월 대비 95.8 %(56,630두)

□ 소 암수별 도축실적

- 소 : 54,251두(전월 56,630두)
 - 한우 41,377두 : 암 22,182(53.6%), 수 19,195(46.4%)
 - 전월대비 : 44,486두(93.0%), 암 24,310(54.6%), 수 20,176(45.4%)
 - 유우 11,605두 : 암 4,742, 수 6,863
 - 육우 1,076두 : 암 189, 수 887
 - 교잡우 193두 : 암 81, 수 112
 - ※ 한우 도축비율(76.3%)

□ 한육우 도살 평균체중

- 한우 553kg, 유우 600kg, 육우 583kg, 교잡우 609kg

□ 한육우·암수별 도축실적(2001년 06월)

(단위 : 두/수)

구분	총계	한우			유우	육우	교잡우
		계	암	수	계	계	계
당월	54,251	41,377	22,182	19,195	11,605	1,076	193
전월	56,630	44,486	24,310	20,176	11,199	775	170
전년동월	84,236	68,208	39,502	28,706	14,675	613	740
전월대비	95.8	93.0	91.2	95.1	103.6	138.8	113.5
전년대비	64.4	60.7	56.2	66.9	79.1	175.5	26.1
당월누계	357,244	278,025	153,450	124,575	73,178	4,909	1,132
전년누계	500,733	412,719	235,849	176,870	79,889	4,610	3,515
전년누계 대비	71.3	67.4	65.1	70.4	91.6	106.5	32.2

□ 한육우 시·도별 도축실적 (2001년 06월)

(단위 : 두/수)

축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우	당월	41,377	3,298	614	642	165	1,255	707	1,571	6,692	3,024	2,955	3,165	3,357	3,616	5,183	5,030	103
	누계	278,025	19,656	4,559	4,253	1,284	7,732	5,480	9,552	45,648	20,788	19,197	25,654	22,986	24,243	33,841	32,474	678
유우	당월	11,605	3,614	463	2	274	255	73	-	3,560	350	217	1,064	437	366	287	602	41
	누계	73,178	20,902	2,532	11	2,016	1,330	545	34	23,518	3,937	1,658	5,241	3,342	2,567	1,427	3,829	289
육우	당월	1,076	209	67	264	369	-	-	-	82	1	19	2	56	6	-	1	-
	누계	4,909	209	320	1,829	1,922	2	1	1	99	31	79	21	305	39	-	51	-
교잡우	당월	193	32	-	2	-	-	-	-	12	4	5	6	8	1	5	24	82
	누계	1,132	125	-	4	-	-	3	3	43	29	19	25	57	20	18	60	698

□ 소 암수별 도축실적

(단위 : 두/수)

월별	계	한우			유우	육우	교잡우
		계	암	수	계	계	계
1월	114,880	91,283	49,013	42,270	21,767	1,454	376
2월	35,261	26,236	15,831	10,405	8,500	447	78
3월	46,065	35,229	20,135	15,094	10,180	521	135
4월	50,157	39,414	21,979	17,435	9,927	636	180
5월	56,630	44,486	24,310	20,176	11,199	775	170
6월	54,251	41,377	22,182	19,195	11,605	1,076	193
누계	357,244	278,025	153,450	124,575	73,178	4,909	1,132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본란은 2001년 제5회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내용을 연재함으로써 참여농가들이 평가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입식 17개월령새의 사양관리

○ 사양관리 요령

- 농후사료(배합) 급여량 : 8~8.5kg
 - 조 사료 급여량 : 볏짚 또는 건초 1일에 0.9~1.0kg 급여
 - 총 사료 급여량 : 9.~9.5kg
 - 소의 증체량은 0.5kg입니다.
- 단, 550kg 미만의 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체중 550kg이 되지 않으면 9.5kg~10.0kg정도 급여 하십시오.
- 가급적 조사료를 볏짚으로 급여하고 청초 급여는 피합니다.
 - 소의 개체에 따라서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씁니다.
 - 사료회사마다 특성있는 사료가 있으면 마무리기 사료를 급여합니다.
 - 항생제 등 투여금지약물의 투여와 사료첨가물중의 항생제 첨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달의 증체목표는 15kg으로 1일당 증체량은 0.5kg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증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비육이 점차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면 고기속의 수분은 줄어들고 지방의 축적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소는 이제 암소 비육우와 마찬가지로 목느러미, 턱느러미가 발달하고 앞가슴이 넓게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교잡(근내지방도)과 근육안의 지방이 늘어나는 마무리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열량이 높은 농후사료를 위주로 사료급여를 합니다.

마무리기에 한여름을 맞이한것은 피할수없는 일이니 가급적이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입식 18개월령째의 사양관리

○ 사양관리 요령

- 농후사료(배합) 급여량 : 8.0~8.5kg
- 조 사료 급여량 : 볏짚 1.0kg
- 총 사료 급여량 : 9.0~9.5kg
- 이번달에는 평균체중으로 된 소에 대하여는 증체를 무리하게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 이번달과 이 다음달(10월)은 마무리 시기입니다.
- 증체가 아직 되지않은 소(550kg 또는 그 미만)는 권장량 이상 사료를 하며 소 개체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5두를 사육하시는 분께서는 출품우(3두)를 선발할 준비를 합니다.

마무리(비육후반기)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열량의 에너지를 소에게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조사료의 특징인 건초나, 헤이큐브 등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조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중단하는것이며 에너지가 낮은 사료의 급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육 마무리기의 특징입니다. 특히 옥수수 사일리지나 청초급여등은 비육출하 1~3개월령에서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1kg 미만의 조사료 급여는 가능한한 볏짚이나 건초 등 양이 적고 수분함량이 낮은 조사료의 급여를 권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중 비육후기의 에너지 총량은 72~75% 등으로 높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료 이외의 특별히 급여하는것으로는 보리가 가장 좋겠습니다. 보리는 비육마무리 사료로서 고기중의 지방의 품질을 좋게하면서 기호성 개선에 의한 사료섭취량의 증가를 늘려 나아갈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리나 눌린보리의 수입자유화나 사료용 보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지조성의 능력이 없는 분에게 조사료를 권장하는 것 같아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외국에서 사료용 보리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수입원가도 저렴하게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비육말기가 되면 어떤 소는 사료섭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에게는 약을 먹이듯이 보리짚을 오래 삶아서 보리죽을 만들어 급여해도 될것입니다. 가능한한 1kg이라도 더 먹이도록 노력하되 조사료가 아닌 농후사료(배합사료)의 급여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